

지방일자리 부족문제

먼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현재 일자리는 서울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지방은 더욱더 일자리가 부족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정부의 정책문제라고 생각 되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주제에 대한 배경 설명으로는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의 심화 그로인한 서울시 아파트 값 폭등, 지방인구 감소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먼저 나는 정부의 수도권 노동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유로는 먼저 정부의 정책은 산업구조의 탈제조화를 부추긴다. 탈제조화란 제조업보다 미래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맞도록 사업을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먼저 지난 30년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으로 일자리가 집중되는 한편 비수도권에서의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지역별 일자리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수도권 산업구조의 탈제조업화와 비수도권 제조업 분야 불황이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전통 제조업 분야의 불황으로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에서 고용 충격이 일어난 것이다.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수도권만 발전시키는 것은 산업구조의 탈제조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상이한 산업노동 환경을 감안해 장소 기반과 사람 기반 접근이 조화된 지역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지역의 산업과 인구구성, 노동시장 구조의 특성을 고려해 직업 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의 영역에서는 지역맞춤형 접근을 강화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정부가 노동행정기관을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전라북도를 예로 들면 전라북도는 노동권익센터처럼 노동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기관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와 무료 노동법률상담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노동행정 중간기관이 부족한 것은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비슷한 상황이다. 일자리와 고용을 제외한 조례도 16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노동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을 펼칠지에 대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를 지방과 수도권으로 나누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다. 대학이 곧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좋은 대학과 명성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인서울'을 해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이렇게 수도권 대학을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일자리 부족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 단지 우리정부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해외는 좋고 유명한 대학들이 수도권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 분포 되어있다. 이는 각각의 지방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일자리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나라는 없는 것이다. 지방도 충분히 발달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학들이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일자리 또한 서울에만 집중되는 것이고 점점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이 수도권을 우선적으로 부흥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점점 우리나라 정부도 지방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다. 하지만 더디고 실용성 없는 정책만 계속 펼친다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더욱이 힘들어 진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역 소외 정책을 강행한다. 지방의 일자리 부족은 지방대 침체에 영향을 준다. 지방대가 저평가 받는 것은 교육의 질보다 지역의 일자리 부족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최근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고 교육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되면서 학생들이 취업 기회가 많은 '인서울' 대학에 몰리고 지방대와 지방의 일자리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지방을 발전하지 않고 지방대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 소외 정책으로 보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 현재 정부가 지역 경제를 살려주고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이 더더 질 것이다. 마지막 참고 문헌으로는 최정훈, “일자리 사업 지역맞춤형으로” 뉴스 기사 2021년 11월 15일 수정, 2021년 11월 27일 접속,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2469846629246048> 곽영신 “일자리 수도권 집중, 지방은 경쟁 기회조차 없어” 브런치 블로그, 2019년 6월 20일 수정, 2021년 11월 27일 접속, <https://brunch.co.kr/@elephant/26> 가 있다.